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8.4.3.(화) 석간	배포	2018.4.2.(월)	
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 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박 재 훈(02-2100-2520)		유 승 은 사무관 (02-2100-2521) 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서 정 호(02-3145-8200)		박 상 원 팀 장 (02-3145-8204)

제 목 :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」 초안 마련

◇ '금융그룹 감독방안'(18.1.31일)의 후속조치로서 모범규준 초안 마련 → 의견수렴 절차(4~6월)를 거쳐 7월부터 시범적용

I. 개 요

□ '18.1.31일 발표한 「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」의 후속 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

○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, EU 감독지침,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

※ 감독대상 금융그룹(잠정)인 삼성, 한화, 교보생명, 미래에셋, 현대차, DB,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.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(초안) 既 공개

II. 모범기준 주요 내용

1.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

□ **(대표회사의 선정)**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, 다른 사정*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함

* ①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, ② 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, ③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

□ **(대표회사의 역할)**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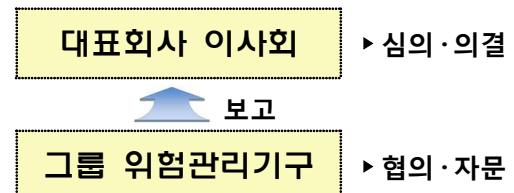
○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

<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 >

- ❶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·운영
- ❷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, 위험집중,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
- ❸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, 그룹 위험관리체계, 주요 위험요인의 보고·공시 등

□ **(그룹 위험관리체계)**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,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*를 지정토록 함

*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,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



2.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

- **(그룹위험의 유형)**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·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

< 점검대상 주요 그룹위험 >

- ❶ **자본적정성**: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, 내부거래·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,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,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
- ❷ **내부거래 및 위험집중**: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
- ❸ **위험의 전이**: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·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전이 될 수 있는 위험(동반부실위험)을 평가·통제

- **(그룹위험 실태평가)**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*

* (실태평가요소) ❶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, ❷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, ❸ 내부거래·위험집중의 적정성, ❹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

- **(위험관리조치)**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하여, 관련위험의 축소,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(☞ 참고 1)

3.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등

- **(금융그룹 감독 협의체)**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·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 (☞ 참고 2)

*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「금융그룹 감독 협의체」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,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

- **(보고·공시)** 금융그룹이 보고·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 현황의 주요 사항*을 규정

* ❶ 금융그룹 소유·지배구조 등 주요현황, ❷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, ❸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, ❹ 그룹 내부거래·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

- ☐ (건전경영지도)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 그룹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

< 위험관리 개선조치의 발동요건 및 권고조치(안) >

구 분	발동요건	권고조치
1단계	▶ 그룹위험 관리실태, 자본적정성 등의 적정 수준 미달	▶ 경영개선계획* 수립 * ① 자본의 확충, 위험자산의 축소 ② 내부거래 축소, 위험집중 분산 ③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④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·자금거래 중단·해소
2단계	▶ 개선계획 불이행,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	▶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▶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

III. 향후 일정

- ☐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,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

* 금년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, 통상적인 절차(사전예고기간 20일) 외의 사전 의견수렴(Consultation) 절차를 추가 진행

- 아울러,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법(안)」도 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

- ☐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(Guideline)으로 활용될 것이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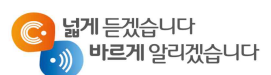
- 위험관리 개선조치,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

<첨부>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그룹위험의 유형	점검대상 위험	자본규제 방식(안)	참고 사례
① 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제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자본의 중복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계열사간 출자 - 상호·순환출자 ▶ 그룹간 교차출자 ▶ 차입을 통한 자본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격자본에서 차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격자본 - 중복계상자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EU 감독지침(FICOD) Annex I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(EU) No. 342/2014 §3*, Annex(산식) <p>* 내부거래에 따른 자본 중복이용 제거</p>
② 위험집중 (Risk Concentr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주주 익스포저 ▶ 산업별 위험편중 ▶ 내부거래 의존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요자본에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비례가산 : (측정위험 - 적정수준) × 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량위험 평가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험 (국내 RBC) : 비금융 종속·관계사 출자분 가산방식 (15%, 60%)¹⁾ ② 은행 (바젤 III) : 비금융자회사 출자분 가산방식 (15%, 60%)¹⁾ ③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(FKAG) : 위험집중·내부거래 한도초과분 자본확충 방식²⁾
③ 그룹내 전이위험 (Risk Contag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(governance structure) ▶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부실 전이위험 (동반부실위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요자본에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(총자산 또는 자기자본) × β_i * β_i :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가산 ※ 운영위험 자본규제 방식 등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비정량위험 평가모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기대응 완충자본 : 위험가중자산의 0~2.5% 가산 ② 운영위험 : 영업규모에 따라 평균이익의 일정비율 부과

1) 아래 ①, ②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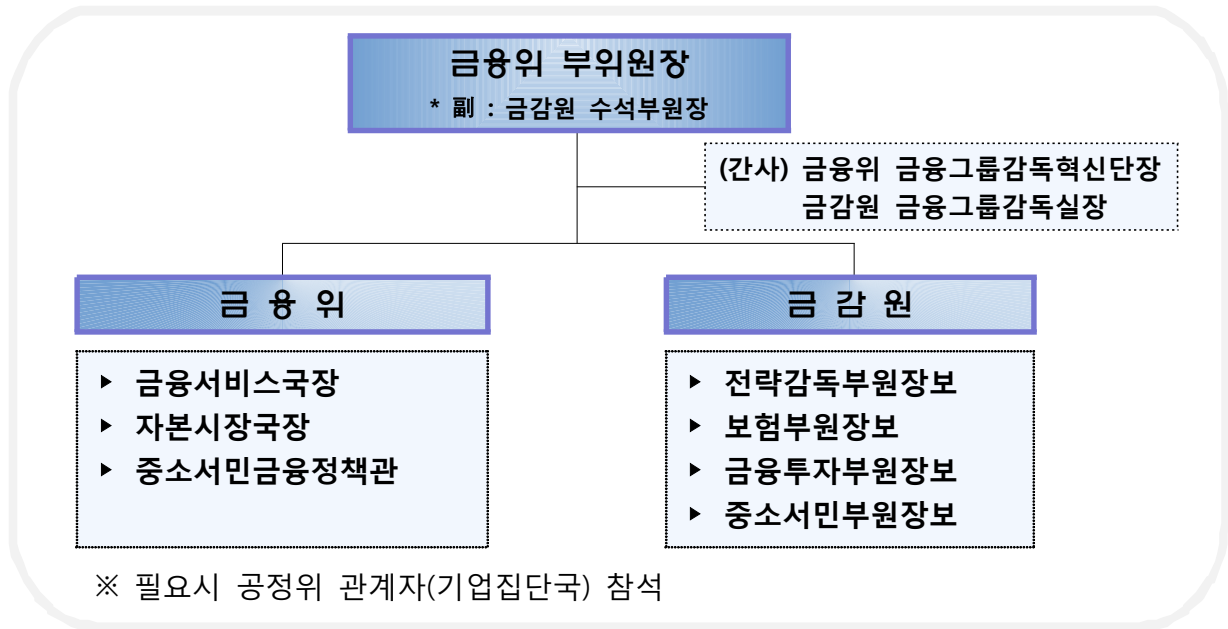
①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% 초과분

②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% 초과분

2) 독일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위험집중·내부거래 수준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에 대하여 해당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(FKAG §23④)

1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(연 1회 이상)

- 통합감독정책 수립, 주요 위험요인 점검, 감독업무 조정 등



2 금융그룹별 감독부서 실무협의체 (분기 1회 이상)

-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진행상황 공유 · 점검,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· 현안,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 · 점검 등 논의*

* 회의 논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'금융그룹 감독 협의체'에 보고

